

건협 서울시회,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

기사입력 2025-08-13 15:58:28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수도권 건설업계가 “생존의 기로에 섰다”는 위기의식 속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최태진)는 경기도회·인천시회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대책 논의 이후, 강화될 안전 규제에 선·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회원사 대표 및 안전관리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

교육에서는 정부 정책과 현장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1부에서는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건설업계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으며, 2부에서는 조선육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시스템 단장이 주요 재해 유형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최태진 회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안전 전담 조직 강화와 점검 체계 내실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